

# 7

##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삼하 11:1~12:15

찬송가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 21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오늘 배울



1. 경건했던 왕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된 이유를 압니다.
2.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압니다.
3.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를 압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헛 사람  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네 처  
 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헛 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은  
 즉  이 네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삼하 12:9~10)



## 을 이해하기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거친 다윗은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왕위에 있으면서 신하들과 백성에게 공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한순간의 나태함으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암몬과 치열한 전쟁 중일 때 다윗은 궁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가로이 낮잠을 즐기던 다윗은 저녁때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신하를 불러 그녀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녀가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아는 당시 전쟁터에 있었기에 다윗은 그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더불어 동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 후 밋세바가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죄를 숨기려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들였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밋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이 모든 악한 행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죽을 때까지 엄청난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의 즐거움은 잠깐이었으나 그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징계를 달게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경외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 공과말씀 정리

---

---

---

---

---

---

---

---

---

---



##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 13:4)

Marriage is honorable among all, and the bed undefiled; but fornicators and adulterers God will judge. (He 13:4)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2

모든 사람이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은 징계가 무엇이었는지 적어 봅시다(삼하 12:9~10).

2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삼하 12:13~14)?

3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확인해 보고, 징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히 12:5~13).

4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로 인한 징계를 받았던 경험을 생각해 봅시다.

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내가 얻은 교훈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창 39:12

---

---

---

---

---

---

---

---

수

딤후 5:2

---

---

---

---

---

---

---

---

화

딤후 2:22

---

---

---

---

---

---

---

---

↑

히 12:1

---

---

---

---

---

---

---

---

가

히 12:4

---

---

---

---

---

---

---

---

마

히 12:6

---

---

---

---

---

---

---

---

바

히 12:8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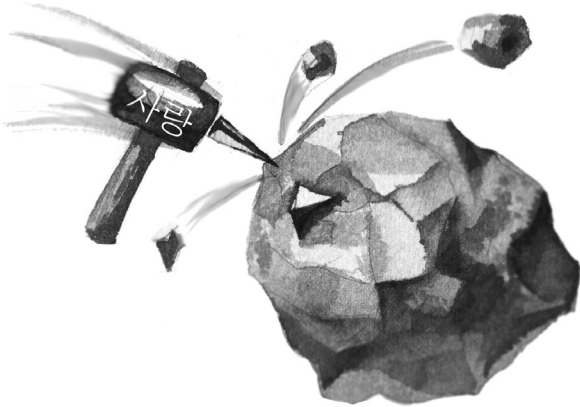


## 하나님의 사랑의 망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리를 채우기 전에 반드시 알맞은 모양으로 다듬어져야 할 거친 돌입니다. 잘 다듬어져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겐 깎여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쇠망치와 정으로 깎아내실 때 한 번도 쓸데없는 망치질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망치질은 우리가 성전에 채워질 필요한 돌로 잘 다듬어지기 위해 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망치질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단련시켜서 더욱 강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사랑으로 가하시는 망치질입니다.



질문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는 분(요 21:17)이라고 했는데, 왜 그분의 재림의 때를 모른다(막 13:32)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신 주님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 5:8~9)

주님은 성육신 하실 때 하늘 영광을 포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신과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의 재림의 때를 모른다고 하신 이유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시고 그 권위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